



What's Up, OITA!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현인회, 유학생 OB, 오이타현 관계자 여러분께 오이타의 "지금"을 전해 드립니다

2025년도 국제정책과 직원 소개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오이타현 관계자 여러분께, 올해 국제정책과 직원을 소개합니다

Q: 좋아하는 (추천하는) 외국 요리는 무엇인가요?



과장
마쓰키 코코

엑스포를 계기로 한 해외와의 교류 촉진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거주하고 싶은 오이타현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공심채 볶음



여권 담당 팀
참사 (총괄)
니시무라 카즈요시

만두, 마파두부

담당 업무

- 여권 심사 총괄
- 여권 팀 인재 육성



여권 담당 팀
주임
노지 카나에

치즈fondue, 샤오롱바오

담당 업무

- 여권 심사 및 발송
- 여권 업무 위탁
- 여권 팀 예산 담당



해외전략팀
주간 (총괄)
아다치 후미토시

화덕 피자

담당 업무

- 해외 전략 추진 총괄
- 과 인재 육성



해외전략팀
부주간
오카와라 다이사쿠

볼로네제 스파게티

담당 업무

- 해외전략 추진
- 해외 프로모션(미국)에 관한 것



해외전략팀
주임
호리카와 준이치로

마가리타 칩otle

담당 업무

- 예산/결산/감사 담당
- 일본어 파트너스 담당



해외전략팀
주사
쇼노 시호

보쌈, 트르텔리니

담당 업무

- 해외 프로모션에 관한 것
- 웨일스 MOU



다문화공생추진팀
주간 (총괄)
난바 가즈히사

선데이 로스트/
충칭 휘귀/ 부대찌개

담당 업무

- 팀 내 업무 총괄 및 조정
- 과 인재 육성
- 영어 통역



다문화공생추진팀
주사
히라이 히로토

스리랑카 카레, 탕수육

담당 업무

- 다문화공생 사업
- 우크라이나 지원 등과 관한 것



다문화공생추진팀
주임
후지카와 미사키

인도미 미고랭

담당 업무

- JET프로그램
- 국제교류원 활동
- What's Up, Oita!

국제교류원



영국 국제교류원
부텔 로사

구운 두부
함박 스테이크



중국 국제교류원
진한위

구운 연어
날계란을 올린 규동



한국 국제교류원
안수영

오이타 명물 류큐
냉우동

News from Taketa City

다케타시 소식

다케타시
홈페이지



다케타시의 자매도시인 독일 바트크로칭엔시와 인연이 있는 유리 예술가 마라이케 모어 씨가 그란츠 다케타 에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5월 17일에는 모어씨를 초청하여 오픈닝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행사장에 약 30명이 모였으며, 모어 씨로부터 자신의 성장 배경과 작품 소개 등을 듣는 자리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어씨는 "다케타시에서 전시회를 열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며, 감사의 마음 뿐입니다. 다케타시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하고, 미소로 저를 반겨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다케타시에서 전시회를 하고 싶습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시회는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었으며, 다케타시를 위해 제작한 작품을 포함한 유리 공예 작품 6점과 판화 9점을 포함해, 총 15점이 전시되었습니다.

모어씨는 다케타시에 머무는 동안 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시민들과 교류하고, 다케타시 내 관광지나 온천 등 일본 문화를 즐겼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자매도시와의 유대가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News from Bungotakada City

분고타카다시 소식

분고타카다시
홈페이지



분고타카다 쇼와노마치에서 맞이하는 [쇼와100년]!

쇼와노마치는 쇼와 30년대 (1955~1964) 당시의 활기찬 분위기를 그대로 현대에 되살리면서, 지역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상점가 거리로도 기능하고 있는 "걸어서 돌아 볼 수 있는 현실적인 테마파크"입니다. 2025년은 쇼와 원년(1926년)부터 기산하여 만 10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분고타카다시에서는 이를 기념하여 다양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쇼와노마치 전시관" 리뉴얼 오픈

분고타카다 쇼와노마치 중앙거리에 위치한 쇼와노마치 전시관은 올해 4월, 작가 난조 아키라씨의 디오라마 작품을 전시하며 리뉴얼 오픈하였습니다. 축소 모형을 이용한 디오라마 속 약 550개의 인형은 각각 다른 표정을 짓고 있어, 마치 쇼와 시절로 돌아간 것과 같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여러분도 분고타카다시를 꼭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News from Kitsuki City

기쓰키시 소식

기쓰키시 관광협회
공식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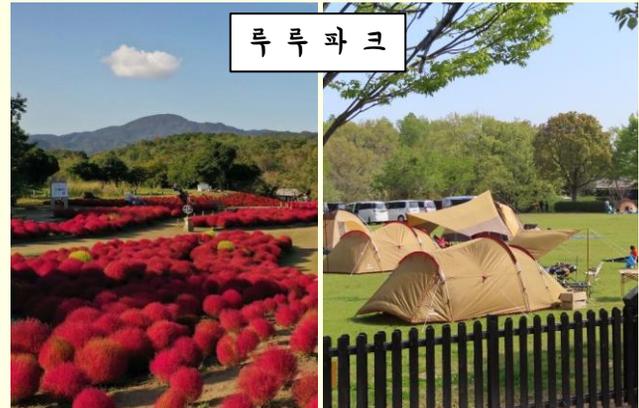
자연이 풍부한 기쓰키시에서 여름을 만끽하자!

~올 여름! 기쓰키시에서 캠핑을~



요코다케 자연공원

요코다케자연공원은 구니사키반도의 요코다케 산 정상 400m 지점에 위치해 있고, 웅장한 경치를 감상하면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또한, 천체관측과 사슴과의 교감 등 자연과 별이 빛나는 하늘을 만끽할 수 있는 체험도 가능합니다.



루루파크

봄에는 네모필라, 가을에는 코키아 (홍땃싸리) 와 같이 사계절 내내 다양한 꽃들을 감상할 수 있으며, 대형 놀이기구도 갖추어져 있어 자연이 풍부한 경관 속에서 어른과 아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캠핑장입니다.

News from Usa City

우사시 소식

우사시 공식
관광사이트



우사신궁이 신사창건 13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5월 2일 (금) 우사신궁 서대문 준공 축하제 첫 통과식 현장

우사신궁은 일본 전국에 4만여 개 이상 있다고 알려진 하치만 신사의 총본궁으로, 매년 150만명 이상의 참배객이 찾는 유서 깊은 신사입니다.

2025년은 하치만 신의 신위가 모셔진 지 13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와 기념 사업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야부사메 (기마 활쏘기) 의식의 모습

고신코우사이 (신의 행차 제례) 및 야부사메 (기마 활쏘기) 에 대한 안내

[일시] 7월 31일 (목)~8월 2일 (토)

[장소] 우사신궁

※야부사메 제례는 8월 1일(금) 3시부터 개최될 예정 (우천시에도 진행)

입석 1석 1000엔 (기념품 포함) 단체관광도 수용 가능합니다.

국제교류원 부임인사

올해, 새롭게 오이타현에 오게 된 3명의 국제교류원을 소개합니다!

부텔 로사



출신지 : 영국 (런던)

취미/특기 : 케이크 만들기, 요리, 공예



It's a pleasur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국 런던 남동부에 위치한 덜위치 빌리지(Dulwich Village)에서 온 부텔 로사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 처음 일본어를 접한 이후,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일본어 및 일본연구를 전공했고, 일본의 게이오 대학교에서 1년간 교환 유학을 경험했습니다. 일본어 뿐 아니라 케이크 만들기와 식문화에도 관심이 있어, 요리교실에서 제과코스를 수강하거나, 식문화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 논문도 '일본의 빵 문화'에 대한 주제로 작성할 만큼, 식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교류원이 되기로 결심한 이유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런던에서의 삶과 일본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과 영국을 잇는 가교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 공동체에서 일본인과 외국인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문화와 언어를 더욱 깊이 배우고 교류해 나가고 싶습니다. 또쪄록 잘 부탁드립니다!



진한위



출신지: 중국 허난성

취미/특기 : 사진촬영, 요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오이타현청에서 국제교류원으로 일하게 된 진한위입니다.

중국 중동부에 위치한 허난성 출신이며, 대학과 대학원은 각각 우한과 베이징에서, 교환 유학 생활은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에서 했습니다.

대학에서 처음 일본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일본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더 알아가고 싶고, 더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문화교류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저는, 오랫동안 꿈꿔온 국제교류의 일을 오이타에서 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런 소중한 인연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시선과 마음으로 일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여러분께 중국에 대해 알고 싶은 열정이 가득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국제교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안수영



출신지: 대한민국 수원시

취미/특기 : 외국어공부, 청소



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국제교류원으로 부임한 안수영입니다.

저는 조선시대에 지어진 화성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수원 출신입니다.

리츠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교 (APU) 에서 처음으로 일본어를 접하게 되었고, 일본인 친구들과의 교류를 계기로 일본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연 덕분에 지금은 제2의 고향처럼 애정을 느끼고 있는 오이타에서 국제교류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여러분과의 만남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마음에서 우러나는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은 물론, 다양한 나라를 잇는 가교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본과 세계 각국의 여러분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욱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밥이 맛있어진다?!

최고의 선물을 만들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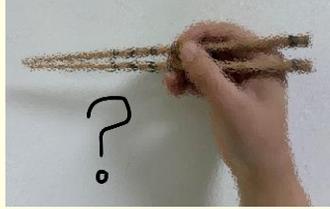
영국국제교류원
부엌 로사



유후인 하시야이츠젠에서 자신의 실력으로 개성있는 세계 유일한 젓가락 만들기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불과 두시간만에 평생 자랑할 수 있는 독특한 젓가락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참가해보세요!



2시간 후



우리집 고양이와 닮은 인형을 발견한 것을 기념으로...



젓가락의 길이를 결정한 후,
도구 사용법을 배운다



팔각형 모양의 디자인을 고른 후, 종이와 사포로
표면을 다듬는다. 생각보다 체력이 필요한 과정!



드디어, 가장 중요한 고양이 머리를 만드는 작업!
직원분과 함께 종이, 사포, 톱, 주머니칼을 사용해
고양이 귀부분을 만들었다.



마지막은 우드버닝 펜으로 마무리! (긴장 되는..)



작은 칼집에 사포와 종이를 감아
본인에 손에 맞도록 홈을 파다.

나의 유후인 모형

하시야이츠젠 근처



유후인역 도착



유후인
플로랄 빌리지

풍부한
자연!



하시야이츠젠의 니시하라씨와 인터뷰:

어떤 목재를 사용해 젓가락을 만드나요?

저희 가게는 주로 유후인에서 기르는 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벚꽃나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젓가락을 만드는 것을 추천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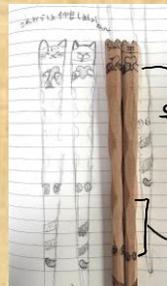
본인이 사용하기 쉬운 젓가락!
본인 손에 맞는 익숙한 느낌의 젓가락을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시야이츠젠은 어떤 젓가락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젓가락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식사에
집중할 수 있는 젓가락, 밥이 맛있어지는 젓가락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사이좋게 지내보자!]

~완성품~



우드버닝 펜으로 그린
그림

손에 맞춘 홈



【하시야이츠젠】

젓가락 만들기 체험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에 둘러싸인 유후인에서 본인이 직접 손으로 젓가락을 만들 수 있어서 기뻐요. 좋아하는
고양이와의 추억이 매일 사용하는 젓가락으로 바뀐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젓가락 만들기 체험을 추천하고 싶다. 직원 분들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도와 주셔서 만들기에 자신이
없던 나도 만족할만한 결과물이 탄생했다. 열심히 만든 젓가락으로 먹는 밥은 아마 남다른 맛일 것
같다!

OPAM과의 LINKS

중국국제교류원
진한위



부임 후 첫 취재로 오이타현립 미술관 OPAM에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LINKS] 라는 주제로 4월 26일부터 6월 22일까지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감으로 즐기자] 라는 컨셉에 특히 끌려, 작품들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여정을 다녀왔습니다!



1. 처음 뵙겠습니다, OPAM!

전시장소로 들어가기 전, 건물 전체에 눈길이 갔습니다.

나선형의 계단이 독특하고 재밌었습니다.

2. '가족'이라는 연결고리

전시실의 입구에는 아버지와 친 딸, 그리고 양자 3명의 작품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표현한 레이아웃에 감탄했습니다



[일본이 동경했던 세상, 세상이 동경했던 일본]



3. 동서고금의 연결

일본의 화가가 서양화를 배우기 위해 유럽으로 건너 간 시기에, 일본의 우키요에의 수법을 참고로 한 모네의 [앙티브의 아침] 도 생겨났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이 동경했던 일본, 일본이 동경했던 세계]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리에 관람객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닫고, 저도 모르게 누군가를 이 작품과 링크 (연결) 시켰다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변해가는 세상과 함께]



4. 예술과 생활

용도와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접시나 꽃병에 그림을 그려 넣은 피카소.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발상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검은 바탕에 아이의 웃는 얼굴이 그려진 접시를 보며, "이 접시라면 무한대로 리필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순간을 마주하다]



5. 자반이축 수천만인 오왕의

(스스로 돌아와서 잘못이 없다면 비록 천만인이 가로막아도 나는 가리라_맹자)

케르니카 작품과 같은 시기에 그려졌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밝은 작품도 있었습니다. 어둠속에서,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려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제 추측이지만, 왠지 용기를 북돋아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6. 변화 속 불변함

전후,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에 몸을 던진 화가들의 작품 및 사진을 보며, 전신에 진단지를 붙이고 시내를 걷는 등 충격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단 한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 그 자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 현대의 모습이 겹쳐져 소름이 돋았습니다.

7. 현실세계의 놀라운 만남

예술 공간을 벗어나자, 견학을 온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작품을 감상하거나 노는 모습을 보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곳에 온 모두가 예술로 연결되어 다양한 만남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오이타의 LINKS (인연)도, 분명 앞으로 즐겁고 멋지게 펼쳐질 것이라 믿습니다.





향기를 입어보자!

오이타 향기 박물관 베푸시



한국국제교류원
안수영



향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필독!

좋아하는 향을 찾아서 정착하고 싶은 향기 방랑자(저자)는 베푸시에 위치한 오이타 향기 박물관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나만의 향수를 만들거나, 직접 향기 주머니를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다. 향을 조합하는 동안 공간 가득 은은하게 퍼지는 다양한 향기를 즐길 수 있었다.

체험을 마친 후에는 향수의 역사와 세계 각국의 향수 제품들을 둘러보며, 눈으로도 코로도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충분히 혼자도 즐길 수 있었던 시간!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향기로운 추억을 이곳 오이타 향기 박물관에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향수 만들기 체험

- ☑16종류의 향료
- ☑소요시간:약50분



1. 세단계의 탕노트, 미들노트, 라스트 노트 향료 고르기

2. 각 향료를 정해진 양 만큼 스포이트로 비커에 넣어준다 (30ml)



3. 향료를 섞는다



4. 향수병에 향료를 넣는다



5. 완성!



향기 주머니 만들기 체험

- ☑8종류의 향료
- ☑소요시간: 약40분



1. 각 천연 향료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향 맡아보기

2. 그릇에 향료를 본인이 원하는 비율대로 넣어 섞어주기



3.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주머니를 고른 후 조심스럽게 향료를 넣어 묶어주기



4. 완성!
(완성된 향기주머니는 사물함에 달았습니다!)



주소: 오이타현 베푸시 키타이시카키 48-1

영업시간: 10:00~18:00 ※휴관일 :매월 셋째 주 목요일 / 카페 정기 휴일 :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 일

입장료: (성인) 700엔 (대학생 /고등학생) 500엔 (중학생/초등학생) 300엔

향수 만들기 : 1회 2800엔 / 향기 주머니 만들기 : 1회 2500엔 (2025년 4월 기준)

※ 체험 전 예약 필수 (홈페이지 예약 및 전화 상담 가능)

[오이타 향기 박물관 홈페이지]



국제교류원 소식



나의 비밀스러운 즐거움

영국 국제교류원 부텔 로사

저는 요즘 온천에 빠져 있습니다. 역시 온천현으로 불리는 오이타당게 선택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최근에 제가 일하고 있는 오이타 현청 근처에 있는 후나이 온천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제 이야기를 기억해주는 세심한 배려 덕분에, 오이타가 낯선 곳이 아닌 정겨운 동네처럼 느껴집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후나이 온천은 도심 한가운데에 있으며 자가 온천수를 흘러 보내는 자연 온천이고, 피부미용에 좋은 온천수로도 유명합니다. 후나이 온천의 포인트는 호박색 온천수입니다. 짙은 호박색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마치 홍차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재미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온천 후에 피부가 매끈매끈해지고 근육통도 완화 되었습니다. 중심가에 위치해 있으니 퇴근길이나 장을 본 후에 들러보시길 추천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중국국제교류원 진한위

"예의 바르다, 아름다움, 깔끔함, 정성, 배려"

일본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다면 저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교과서 속에서, 그리고 실제 삶에서 그렇게 배우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유학이후 8개월이 지난 지금, 일본에 다시 와서 그 인상을 다시한번 실감했습니다. 한번은 온라인상에서 칼을 주문했을 때, 칼 포장안에는 정성 들여 쓴 따뜻한 인사말이 적힌 편지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를 눈에 잘 띄는 곳에 올려두고, 저도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 살아가자고 다짐했습니다. 거리를 건다 보면, 구김 하나 없이 단정한 교복을 입고 나란히 걷는 고등학생들, 서로 길을 양보하는 자동차들, 깨끗한 거리,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동료들...이런 일상적인 풍경을 마주할 때마다, 걱정했던 본리수거도 더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중히 인사하고, 즐겁게 지내보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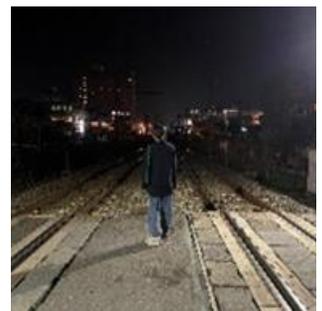
다녀왔습니다, 오이타!

한국국제교류원 안수영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마치고, 이제 직장인으로서 새롭게 오이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시절과는 또 다른 마음가짐으로 오이타에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저는 오이타에 있는 리츠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교 (APU) 에서 공부했고, 올해 졸업했습니다. 대학생 시절부터 오이타는 자연이 풍부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위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오이타현 내의 여러 지역-히지마치, 사이키시, 분고오노시, 벳푸시, 쿠니사키시, 유후시, 쿠스마치 등을 방문했는데 어느 곳이든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인상깊게 남아있습니다.

'청년층의 도시유입' 현상을 생각하면, 지방도시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이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벳푸역에 가면 [벳푸~벳푸~]하고 안내방송이 들리는데 항상 마지막 [푸~] 부분에 웃음 짓게 됩니다.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오이타에서 웃음꽃을 피우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활동을 전 세계에 소개해보세요!

세계 곳곳에서 활약 중인 오이타현 관계자 여러분.

현인회 활동(천목회), 유학생 OB의 근황 등을 기다립니다!

(양식 자유)

[기사제공 / 문의]

오이타현청 국제정책과

-담당 : 후지카와, 나카야마

[메일] a10140@pref.oita.lg.jp

모집 중!

